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① /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①

우정과 라이벌이 운명 지은 가시밭길

여익구는 민청학련 관련 긴급조치 1호,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된 180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당시 동국대 총재로 활동했다. 그는 1974년 4월 구속되어 15년 선고 후 1년 동안 복역했다가 풀려났다. 이때부터 감독과 친구하며 1980년대는 물론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시밭길을 걸었다. 1975년 민중 불교회 사건, <불교의 사회사상> 출판 및 판매금지,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등 불교운동과 관련해 그 동기와 배경을 묻는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사자의 구술을 통해 들리는 내용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역사 자료의 나열보다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거나 에피소드에서 오히려 역사의 일면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한국불교사연구회 요청으로 여익구는 자신의 생애사 구술에 응했고, 교육과 연구 및 관심사를 위해 개인사를 회고했다. 6시간에 걸쳐 구술한 내용 중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거 쏟아졌다. 여익구의 불교운동과 관련해 그 동기와 배경을 구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알아본다.

여익구는 어렵사리 동국대 경영학과에 입학(1967)했지만, 최대 이윤 추구라는 경영이념이 처음부터 싫었다. 1학년 마치고 곧바로 군입대한다 그는 베트남 파병을 자원했고, 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

격하게 된다. 생사를 오가는 다반사는 오히려 예외이며,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장면들을 목격한 것. 이와 달리 사찰에 마리아상을 세워놓은 베트남 불교의 모습에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특히 티끌 특 스님의 소신공양(1963) 내용이 수록된 당시의 <불타의 새얼굴>(제철드 섹터 지음, 여익구 번역 1980)을 보고 그는 불교와 가까워진다. 그는 복학하여 불교서를 에 가입하게 되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님들을 흠모하며 불교학과로 전향하려다 사학과로 옮겨가게 된다. 그는 종합대학인 동국대가 아닌 베트남에서 불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1973년 11월 늦가을 여익구는 친구이자 라이벌인 김갑현을 만난다. 당시 김갑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이 결정되었고, 서울대 황인성으로부터 시위 거사를 제안 받는다. 김갑현은 친구 여익구에게 유학해야 할 사정을 말했고, 여익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974년 4월 초 거사가 발각되어 수많은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김갑현과 여익구도 조사받았다. 다음은 구술 녹취록 일부이다.

그리고 인지 그 추운 독방에서 그냥 뭐 말도 못하게 뭐 빈대가 그냥 막 쪼는 그런 방에서 인지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사악

하나, 내 친구인 지금 메사추세츠 주립대 교수한다는 놈 김갑현이란 친구인데 김갑현이, 그 친구가 안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도, 난 그 친구를 안 불었지마는 끝까지, 그 전에 여기저기 걸려서 그 친구가 불



려 결국은 이름이 드러난거야. 그 친구도 잡아갔어. 잡아가서 “옥스퍼드 갈래 말래?”, “옥스퍼드가겠다”, “그럼 얼마 나가 한 거 전부터 자수형식으로 바뀌”. 자수형식으로 해서 나갔네. 그걸 내가 나중에 끝까지 안 부니까 쥐 됐다 “임마 이 xxxx야 그 그러고 갔어 임마”, 이래서 알게 된 거야(이하하하).  
내 속으로는 나는 내 친구 내가 숭배하던 내 친구한테 내가 이긴 거야, 마음으로.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러니까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 같애. 오랫동안 머리 좋고, 뭐 이런 뛰어난게 공부 잘하는 놈에 대한 친구였었지만 콤플렉스가.(2010.2) <계속>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여익구 이사장은 불교계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1967년 동국대에 입학한 후 맹호부대에 입대해 월남에 파병되기도 했다. 여 이사장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5년여 동안 출가수행자의 길을 걷기도 했다. 1980년 동국대에 복학했으나 그해 5·17 군사쿠데타로 검거돼 3년형을 구형 받았으나 선고 유예로 석방됐다.

1981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사무총장,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에 취임하며 참여불교 운동을 이끌었다. 1986년 5·3 인천사태로 현상수배돼 옥고를 치렀다. 2002년 민주당 용산구 선거대책위원회장에 이어 현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도 스님의 삼소골의 향성①

물처럼 살면 후회 없을기라

요즘 통도사는 매화꽃이 한창이다. 얼마 전 꽃망울이 터질 즈음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매화나무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 매화나무는 관심을 받아 좋겠다 싶지만, 절은 찾는 신도나 사중스님들은 새벽이나 밤에야 겨우 쳐다볼 기회가 있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도 생각이 들었다.

통도팔경(通度八景) 중 하나인 촛추는 듯한 바람, 물결치는 듯한 찬 소나무라는 뜻의 ‘무풍한송(舞風寒松)’ 보행로를 걷다보면 언제나 ‘여기가 극락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극락은 즐거움이 극에 달했다고 해서 극락이라 한다. 30여년간 극락암에 주석하며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극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나?’라고 말했던 근현대 선지식인 경봉 스님(1892~1982)이 생각한다.

통도사를 찾은 이라면 누구나 일주문 앞에 이르기 전 만나는

통도사 극락암 주석하던 경봉 스님 “극락엔 길 없는데 어떻게 왔나?”

대리가 있다. 세 개의 별과 반달을 이으면 마음 심자가 된다고 하여 이름을 붙여 만든 ‘삼성반월교(三星半月橋)’가 그것이다. 삼성반월교는 지금도 예술적인 미관에 대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스님은 1927~1976년까지 50여년 가까이 일지(日誌)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일타 스님은 <삼소골일지> 서문에서 “사람들이 한 평생 일기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에 ‘10년 이상 일기를 쓰는 이는 임지(立志)를 굳히는 사람이고, 20년 이상을 계속하는 사람은 성공을 기억할 수 있는 이고, 30년 이상을 끊임없이 쓰는 이는 덕을 베푸는 어른이 된다’고 했었는데 노스님 같은 분은 참으로 화중련(火中蓮)이시고 만고에 희유한 즉사즉리(卽事卽理)의 도인이시다”라고 기술했다.

경봉 스님의 일기는 그야말로 근현대불교의 당시 생생한 상황을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보고이기도 하다. 스님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철저히 행하신 분이 다. 출가자는 당연히 깨달음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철저히 수행과 보임을 하였고, 나아가 출가자와 재가자의 공부

점집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또, 통도사의 큰 법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화엄산림법회의 처음 시작을 연 이가 경봉 스님이기도 하다.

스님은 <화엄경>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첫 화엄산림법회 때 견성을 했다. 극락암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경봉장학금’으로 학인스님들을 후원하며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경봉 스님의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한 가르침은 ‘일념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재가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있다.

스님의 선사상(禪思想)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법해(法海)>의 법문집과 초서로 된 계승과 일기인 <삼소골일지(三笑窟日誌)>, 당시 고승들과 편지 문답인 <삼소골소식(三笑窟消息)> 등이 있다.

요즘 우리 불교계 과제중 하나는 젊은 층의 불자의 확보이다. 이를 미리 알고 있는지 스님은 대학생

불자들을 낚달리 좋아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다. 스님의 이같은 관심 덕분에 당시 대학생불교연합회원이었던 재가불자들이 현재 사회 구성구석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이다. 이 봄에 스님의 물 법문이 떠오른다.

만물을 살리는 게 불인 기라. 제 갈 길을 찾아 쉬지 않고 나가는 게 불인 기라. 어려운 구비를 만날수록 더욱 힘을 내는 게 불인 기라. 맑고 깨끗하여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게 불인 기라.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어 고기를 키우고 되돌아 이슬비가 되는 게 바로 불이니 사람도 이 물과 같이 우주 만물에 이익을 주어야 하는 기라.

물처럼 살기 마련 후회 없을기라...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일 목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 - 이해하고 내려놓기

‘이해하기’ 없이 ‘내려놓기’ 하면 불선한 마음 억눌려 잠재돼

모든 존재는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고통을 버리고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열망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만일 행복을 원하면서 고통을 일으키는 길을 간다면 마치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사람처럼 원하는 결과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 따라오는 고통은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

하는 것인가? 아직 우리의 지혜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붓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붓다께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四聖諦), 즉 괴로움의 진리인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인 집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인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인 도성제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설하셨다. 여기서 도성제는 팔정도를 뜻한다.

집성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즉 고성제의 근본 원인이 어리석음과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행복이라 잘못 이해하고 집착을 하거나, 행복한 것

을 괴로움이라 잘못 이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것을 행복으로 보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붓다께서는 도성제, 즉 중도의 길인 팔정도를 설하셨다.

팔정도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어리석음과 탐욕과 성냄에 뿌리를 둔 마음, 즉 불선(不善)한 마음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행복의 원인이 되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에 바탕을 둔 마음, 즉 선(善)한 마음을 개발해 멸성제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바로 이 팔정도의 실천을 불교수행이라고 한다. <계속>

일 목 스님은?

1996년 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 중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해 2002년 범어사강원을 졸업하고 봉암사 등 제방에서 참선수행을 했다. 스님은 미얀마 파옥 국제 명상 센터에서 3년간 수행(2005년)하기도 했다. 스님은 2007년 제따와나 운영위원들과 함께 수행공동체 제따와나 결성했다.

현재 스님은 제따와나 방배선원장이 다.



일목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 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 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제조방법)특수 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만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많은 위기 식을 177호 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총판사 | 정장특 저음 | 갈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공함 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추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

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잠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